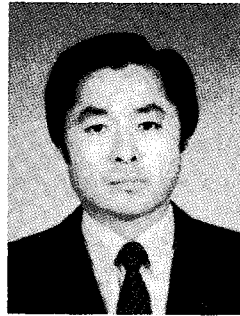


낙농가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옥경
농림부 축산국장

IMF란 국가적 위기상황아래에서 굴하지 않고 낙농육우 산업을 꾀꿍하게 지켜온 축산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은행권 할 것 없이 국가의 모든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리에는 실직자가 넘쳐나고 소득감소에 의한 내수침체로 국가경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원료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유래 없는 사료 가격 상승도 있었으며, 우유와 쇠고기 소비감소에 따라 분유재고가 누증되고 소값이 하락하는 등 낙농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초도 함께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소값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분유재고도 줄어들고 있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낙농산업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며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지금 우리낙농산업이 당면한 이와 같은 시

낙농가는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여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푼의 생산비라도 줄여 외국제품과 가격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위생수준을 높여 외국제품과의 품질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양관리와 과학적인 생산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간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낙농산업은 1937년 우유가 이 나라에서 처음 생산된 이래 50년대 말까지는 생산량이 극히 미약하여 생산된 우유는 전량 시유로만 유통되었으며, 판매하고 남은 우유는 가공·저장하지도 못하고 자가소비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우기 6.25동란중 대부분의 젖소가 도살되어 동란 후에는 사회사업용으로 외국에서 무상으로 들어온 유제품들이 국내시장을 완전 점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낙농업과 유가공업은 발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초 정부의 낙농진흥시책에 의해 많은 젖소가 외국에서 도입되어 낙농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시유로 소비하고 남은 우유를 처리하기 위해 유가공품 생산이 늘어났고 우유가공 기술도 조금씩 발전되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불과 17년전인 1980년만해도 45만톤에 불과하던 원유생산량이 지난해 말에는 200만톤 수준으로 4배 이상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낙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여러 가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농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 정부 등 전 낙농인이 다시 한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농가는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여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푼의 생산비라도 줄여 외국제품과 가격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위생수준을 높여 외국제품과의 품질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양관리와 과학적인 생산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낙농관련단체는 단체대로 낙농가와 의 원활한 협조체제아래 유제품의 유통·가공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낙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보다 신선하고 안전하게 소비자의 식탁



정부는 여러분들의 권익보장과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낙농인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에게 완전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경쟁력제고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다면 머지않아 낙농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에 올려야 할 것이며,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낙농가와 관련단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원유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제도화하고, 집유일원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한편 원유검사를 공영화하는 낙농진흥법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됨으로써 우리낙농산업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설립·운영될 낙농진흥회의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낙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발전을 위한 양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낙농산업의 제1의 생산품인 우유가 식품으로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장 완전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은 분명 우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식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낙농인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들의 권익보장과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낙농인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에게 완전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경쟁력제고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다면 머지않아 낙농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낙농인 여러분의 분발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